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 : 15

348

2015. 4. 19

2015년 주님의교회 표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
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
를 사랑할지니라 요일 4:21

오늘의 주요기사

- 2 신년 특집 인터뷰
- 3 2015년 무지개 잔치
- 4 부활절 예배 드라마 특집
- 5 정신학원에 깃든 기독교 역사
- 6 아기나들이

교회 일정

- 4/19(주) 장애인주일
- 4/20(월) 평양노회(온누리교회)
- 4/29(수) 제직회
- 5/3(주) 어린이주일, 유아세례,
성찬주일
- 5/5(화) 무지개 잔치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ttv.org

주님의교회



다시 돌아온 사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
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
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 49:15)

벌써 한 해가 지나 다시 사월이 돌아왔다. 그날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하게 모두의 가슴에 남아 있는데, 바람에
날리는 꽃잎은 먹먹한 시야에 가득하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고난당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
을 잊지 않는 것. 다시는 사월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

교구 중심 사역으로 개편 추진

하나님 나라 지향하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구축
급격한 교인 수 증가에 따라 교회 본질 회복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제시

겨자씨 활성화를 위한 교구 중심
사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4월
6일 당회에서는, 사명자 대회 이후
의 겨자씨 활성화를 위한 교구 중
심 사역 추진 방안이 보고되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주님의교회는
지난 27년간의 급격한 양적 성
장으로 목회적 관계, 공동체성, 공

동의회 참여도 등에서 점차 대형
교회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
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립 초기
한국 사회에 진정한 교회 회복을
위한 개혁적 모델로 자리매김 했
던 것과 같이, 새로운 교회 모델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는 사회적 필
요성도 이 변화의 배경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사명자 대회의 목
적을 계승 발전하는 수준에서 목
회 차원의 시행안을 통해 시험적
으로 운영함과 함께 구체적인 시
행 방법에 대해서는 2016년도 정
책당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대
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3면으로

함즐함울

2015년 특집 | 사명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들을 섬기며

이제 막 예배가 끝난 사랑나무교실에 들어서서, 사랑나무팀에서 가장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은 누군가 물어보자, 다들 이분, 이정선 권사를 추천했다. 대충 손으로 쓸어 넘긴 듯한 머리에 화장기 없는 수수한 모습의 그이와 함께, 꽃잎이 바람에 눈처럼 날리는 정신여고 도서관 앞 뜰 벤치에 앉았다. 교회에서 잘 눈에 띄지 않던 분이리라 서먹했던 것도 잠시, 곧 그이의 수더분한 옛날 얘기에 빠져들었다.

신학 공부를 하셨다면요.

“주님의교회에는 1988년 겨울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외부 간증 때문에 주님의교회를 알게 되었고, 직장 근처이기도 해서 곧 정착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덕분에 신학 공부를 했고, 춘천, 청주, 천안, 전주 등 소년원 교도소 봉사를 7-8년 했습니다. 지금도 주중 전도사로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지요. 처음엔 주일에 다른 권사님 두 분과 함께 교회 주방에서 국수 삶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 덕분에 공부를 했으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빛을 갚는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교회 관리 일도 했었고, 중보기도팀

에서도 몇 년 사역을 했다. 이후 유성훈 목사 부임 후 사랑나무교실의 창설에 참여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암으로 투병생활을 했다. “암이 나를 울리려고 왔는데, 내가 암을 울리고 나는 웃는 것으로 바꾸었어요.” 하는 그이의 목소리가 유쾌하다.

사랑나무교실의 창설 멤버라고 들었습니다.

“사랑나무 생긴 게 2009년부터니까 올해로 7년째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랑나무실을 만들기 위해 안산제일교회, 서울교회 등 다른 교회들의 사랑나무실 답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시설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지요.”

그이는 덩덤하게 말을 했지만, 발달장애와 자폐아를 섬기는 사랑나무교실이 쉬울 까닭이 없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이들과의 외출도 쉽지는 않다. 그동안 두 번 야외예배 날을 잡았는데, 두 번 다 비가 왔다. 왜 이렇게 비가 올까, 속상해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들리는 말씀이 “너희나 단풍이 좋지, 아이들도 좋은 것이냐”라는 것이었다.



힘든 일이 많으셨을 듯합니다.

“지금은 열한 명이 나오는데, 교사들은 스무 명이 넘습니다. 사랑나무 아이들은 감정과 신체 조절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한 아이 당 교사 두세 명이 이들을 챙겨야 합니다.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해도 계속 들어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감당이 안 되었는데, 지금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비장애인들에게 보고 배우라고 보내주신 천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싸우지도 않고, 욕심도 없거든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드렸으나, 몇 년전부터 토요교실도 열었다. 올해부터는 체육활동도 하고 있다. 아이

들이 매우 좋아한다. 연령대는 열 살부터 서른다섯 살까지다.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교육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돌봐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없어서 부모들은 사실 참 힘들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중에는 동기전도사 교회에서 사역을 할 예정이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삶이다.

함글함글

〉 '2015년 교회 주제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삶 가운데 사명의 본보기가 될 사례를 발굴하여 미니 인터뷰 형태로 전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73

農事(농사)와 관련된 節氣(절기)중 帳幕節(장막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 다섯날은 草幕節(초마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레위기 23:34)

收藏節(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23:16)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즐기던 축제일.

히브리 력 7월(티스리 월) 15일부터 1주일간 지켜졌다. 1년간의 농사를 마치고 수확한 후 지키는 절기로서 추수감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收藏節(수장절) 또는 草幕節(초마절)이라고도 한다.

文字的(문자적)意味(의미)

★帳(장막 장, 휘장 장): ‘베, 천’을 뜻하는 巾(수건 건)에 ‘길다, 어른,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長(긴 장, 어른 장)을 합쳐 ‘천을 길게 드리워 가린 것이 장막 또는 휘장이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幕(장막 막, 휘장 막): 없다는 뜻의 부정사와 하지 말라는 금지사인 莫(없을 막, 말 막)에 한 폭의 천을 상징하는 巾(수건 건)을 결합하여 ‘없는

것처럼 감추기 위해 한 폭의 천을 드리운 가리개가 장막 또는 휘장이다’라는 글자가 되었다.

★草(풀 초): ‘많은 풀썩’을 상징하는 艸(풀 초)의 변형체 艹(초두머리)와 冫(이름 조)가 결합되어 ‘많은 새싹들이 이른 계절인 봄에 돋아나니 풀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節(마디 절): 竹(대 죽, 대죽 머리)에 ‘나아가다’는 의미의 卽(곧 죽)을 결합시켜 ‘대나무가 자라 나아갈 때 생기는 것이 마디이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는데 절기, 예절, 절개, 풍류, 절약의 뜻도 있다.

함글함글

섬기는 손 18



오랜 전통의 매뉴얼에 따라 이른 주일 새벽 준비 되는 커피와 동글레 차, 20년 경력 바리스타 님은 봉사부 성도들의 섬김의 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글함글

사명자대회 소식

사명을 위한 40일 여정 마쳐

지난 부활절 예배드라마를 기점으로, 40일 사명자대회가 마무리되었다. 지난 2월 첫번째 주, 사명자 대회 알리기부터 시작하여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예수친구사역 서약식, 사순절 특별새벽기도, 예수친구사역 1단계 리더 훈련 및 겨자씨를 통한 전교인 훈련, 사순절 성 금요일예배, 부활절 예배드라마와 사명자 대회 결단식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다. 부활절 예배드라마 후 사명자결단식 “이번 사명자대회를 통해 겨자씨가 활성화되는 큰 결실을 거두었다고 보입니다.” 전 과정을 담당했던 조광민 목사의 말이다. 실제로 겨자씨 인도자 모임에는 90%가 넘

는 겨자씨 인도자가 참여하여, 종전에 비해 3~4배 참석률이 높았다. “이제는 활성화 된 겨자씨가 사명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기간 동안 새벽 기도 통계도 주님의교회 구성원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를 보여준다. 평상시 75~100명 수준이었던 새벽예배 참석 인원이 기간 동안 300여 명이 넘게 유지되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겨자씨 사역이 보다 자치적으로 활발하게 지원되도록, 교구 중심 사역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조광민 목사의 말이다.

함글함글

바울 이야기 주제로 열리는

2015년 무지개잔치

올해 무지개 잔치는 5월 5일 열린다. “바울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바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 이야기를 어린이와 가족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놀이마당에도 바울의 이야기를 입히고, 바울 스토리 체험관을 통해 재미와 함께 바울의 삶과 전도여행을 경험하면서, 부르심의 의미를 기억하는 하루가 될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부서실과 정신학원 운동장에서 열릴 무지개잔치에는 약 2,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제적으로는, 운동장 전체를 바울의 전도여행 무대였던 이탈리아아와

마케도니아, 시리아, 유대, 이집트를 망라하는 지역으로 배치하여, 각각의 놀이 지구 앞에 바울의 스토리를 담은 게시물을 세워 어린이들이 바울의 부르심과 삶의 이야기를 경험하도록 할 예정이다. 오프닝 행사에 이어 유아, 아동 놀이테마, 바울 스토리 체험센터가 열리며, 오후 3시에는 유아 인형극과 아동 봄 운동회가 펼쳐진다. 여느 무지개 잔치와 같이 갖가지 먹거리 테마도 구성될 예정이다.

함글함글



부활절 예배드라마 후 사명자결단식



2014년 무지개잔치 자료 사진



장애인 사역팀 야외예배

2015년 4월 11일 토요일, 더 바랄 것 없는 완벽한 봄 날씨를 맞아 장애인 사역팀 야외예배가 천안 독립기념관을 다녀오는 여정으로 장애인 28명과 사역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1시 30분에 독립기념관에도착하여 울울창창한 소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렸다. 정창화 목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민족을 여러 환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한 말씀

을 전하고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감사기도를 드렸다. 곧 이어 식사를 하고 독립기념관을 관람했다. 2부 순서로 권혁준 목사가 준비한 게임을 하며 파안대소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잠시나마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외세로부터 환란고초를 당하며 이 땅을 지켜낸 선조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귀한 하루였다.

이민자 권사/장애인사역팀장

> 1면에서

교구 중심의 분권형 시스템 지향

교구 중심 사역의 기본 방향은 겨자씨 모임을 활성화하고 소그룹 형태의 다변화를 꾀하며, 교구 중심 사역을 통한 대형 교회의 구조 개혁 모델을 개발하고, 교구 중심의 공동체성과 선교의 역동성을 강화하며, 당회는 여러 색깔과 크기의 교구들의 네트워크 중심에 있는 허브로 기능하도록 하고,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로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며, 피라미드식에서 그물망식의 분권형 시스템을 지향한다. 우선 올해와 내년에 걸쳐, 겨자씨 모임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교구 중심 사역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며, 하나님 나라 지향 대형 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데 두었다. 그 시행의 1단계로 사명자 기간 동안 교구 중심 사역 계획을 수립하고, 2단

계로 이후 겨자씨 인도자 모임은 교구별로 담당 교구목사가 주관하고, 예수친구사역 모임도 교구별로 진행하며, 월1회 교구 기도회를 교구별로 갖기로 했다. 교구장로는 교구목사와 함께 교구목양사역을 관장하게 된다. 또한 올해 7월 개최할 전교인수련회부터는 교구 리더십 구축과 교구 공동체형성을 주된 목표로 삼기로 했다. 3단계로 전교인 수련회 이후 정책당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2016년 교구 중심 사역을 위한 재정, 공간, 조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논의하고, 2016년부터는 시험 시행 기간 동안의 평가와 보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함글함글

특집 인터뷰

예배드라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2015년 부활절 예배드라마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막을 내렸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말씀을 주제로 삼았던 이번 예배드라마는, 예수님 역을 여성배우가 맡는 등 새로운 해석으로 화제를 모았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감동 받았음을 고백했다. 오랜 시간을 헌신하며 연습하고, 열연으로 감동을 선사한 연기자 몇 분을 만났다.



머릿속에서 종소리가 들려 무엇보다도 여성 연기자의 예수님 역할로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이번 예배드라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성공적이었다.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무릎 위에 누인 예수님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 그 어려운 배역을 맡았던 김영림 권사에게 처음 배역을 맡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물었다.

“대본과 함께 역할을 정할 때, 예수역을 맡게 된다는 것을 알고, 머릿속에서 종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 역을 맡다니, 그것도 여자인 내가!” 그때부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일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오랜 기도 끝에, 예수님은 내 안의 독소를 뽑아내고, 다가와서 품어주시는 분, 토닥토닥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 “연기는 예배드라마 2012년부터 시작했어요. 경험이 없어서, 참여에 뜻을 두고 시작했는데, 매년 연기자로 참여하게 되었네요.”

2012년에는 수호천사, 2013년에도 천사, 2014년에는 38년 된 중풍환자 역을 맡았다.

“아픈 환자 역할을 하는 것이 싫었는데, 연습을 하면서, 내 안에 관계의 중풍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연기가 아니라 예배이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느꼈다는 그녀는, 인터뷰 뒤에도 기사화 되는 것을 여러번 망설였다.



초등학교 때 이미 준비된 바울 바울역을 맡았던 장수호 집사는 올해 교장으로 승진해서 무척 바빴다. 발령을 앞두고 사양을 했으나, 기도와 함께 떠오르는 책임자라는 문전도사의 적극적인 권유를 뿌리칠 수 없었다.

“대학 때부터 연극반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영화광이어서, 극장에 갈 때마다 막내인 나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초등학교 시절에만도 영화를 수백 편은 보았을 겁니다.”

영화배우나 탤런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교대에 진학해서 연극반을 했던 것도 그 연장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배우가 되지 못한 것은 연기의 탤런트를 주님의교회에서 드러내라는 뜻이었던 듯하다. 주님의교회는 2005년부터 출석했다. 주님의교회 성극반의 초창기 멤버로, 예배드라마가 시작한 후 2013년에는 선장 역을 맡았고, 올해에는 바울 역을 맡았다.

그 많은 대사를 어떻게 다 외우는지 “노력이지요. 스토리와 상황을 기억하면서 모든 대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에 하지 않던 행정 업무도 하다 보니 일과 시간에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새벽 세시에 일어나 여섯시까지 목욕탕 안에서 하고, 거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표정을 보면서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교회에 오면,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대사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



아 고생을 많이 했다.

눈물로 고백한 하나님의 부르심 “저는 사울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을 무시했었지요. 집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교회에 따라다니면서도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았지요. 그러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후두천명으로 숨이 차서 젖을 제대로 못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위태롭다고 느낄 무렵,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시니 아이를 살려준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알고 종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다. 놀랍게도, 부부가 세례를 받은 날 밤에 아이가 완쾌되었다. 성령님의 은혜를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오래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연습하면서도 나의 일처럼 눈물이 났다.

선데이 크리스천이 부끄러워 참여 부부가 함께 연기한 이들도 많았다. 그중 고경봉, 조성숙 집사 부부는 처음부터 함께 참여한 경우이다. 조성숙 집사는 고등학교 때 연극부를 했던 인연으로 2012년 예배드라마 때 자원을 했다.

“그동안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주일 예배만 참석했던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던 터였어요. 작은 야고보 역을 맡았지요.”

다음 해 정년을 맞은 남편에게 함께해보자고 권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남편은 2013년 예배드라마에서 제법 비중 있는 니느웨왕 역을 맡았고, 아내는 시녀3을 맡았다. 다음 해, 남편은 주인공 격인 아리마대 요셉 역을, 아내는 문둥병자와 유대인을 맡았다. 올해는 아내가 대제사장 역을, 남편은 스데반 역을 맡았다.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 “교회를 다니지 않던 고등학교 시절, 12지장게양이 있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했었지요. 병이 어느 날 사라졌고, 그 일을 까맣게 잊어 먹고 있었습니다.”

정년을 몇 년 앞두고 내시경 검사를 받는데, 담당의사가 전에 12지장 게양을 앓았던 흔적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사십여 년 전 기억이 떠올랐고,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예배드라마는 연극이 아니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연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긴장이 되지 않더군요.”

배역에 따라 예수님을 괴롭힐 때에는 갈등도 없지 않다. 그 모든 역할과 외침이 나를 향한 외침이었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된다. 결국 연기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고, 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 좋은 사역을 부부가 계속 독점하는 것이 옳은가 반성하면서, 많은 성도가 참여하기를 ‘강추’했다.

함글함글

목회 칼럼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실까

세월호 사건이 있는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세월호와 관련된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어느새 나도 이런저런 바쁜 일상을 핑계로 참 많지도 잊고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다. 처음에는 함께 아파하고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를 통해 진정으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였건만...

1년째를 맞으면서 함글함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함글함글 기자들 모두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조심스러운 면도 보인다. 모두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고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기에, 특별히 교회라는 공간에서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가 익숙하지 않은 듯하다.

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일까? 이 사건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생각만은 아닌 듯하다. 오히려 가장 큰 이유는 세월호 사건이 이제 우리들에게 “정치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현실에 있다. 어쩌면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한 사건이 어느새 누구도 모르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옷



을 입어버린 것이다. 누구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을까? 야당정치인? 여당정치인? 정부?... 이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아니 우리 자신의 책임은 없을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정치적 관심은 아닌 듯하다. 정치와 무관한 사건에 대해 정치적 색깔을 입히고 정치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은 정치의 가장 추악한 형태는 아닐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다. 이는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이었다. 어떻게든 생명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 기꺼

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 말이다. 그런데 당시 종교, 정치, 경제적인 득권들은 이 사랑의 운동에 대해 정치적인 옷을 입히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이를 생명을 향한 사랑운동이 아닌 정치적 행동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운동을 오직 정치적 운동으로 바라보게 된다. 결국 이러한 생각들이 모두를 지배하고 결국 정치적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

세월호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어느새 누군가가 입혀놓은 정치적인 옷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좀 더 깊게 바라보면 어떤 사건을, 심지어 정

치와 전혀 무관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정치적인 옷을 입혔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상대방과 나와 직접적인 관계성을 배격하고 상대를 나와는 상관없는 객관화된 3자로서 바라 볼 때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 생명을 생명으로 그것도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선으로 바라 볼 때 우리는 누군가가 입힌 정치적인 시선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내 가족, 내 친지,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겪는 아픔이라면 그를 향한 나의 시선은 어떠한가?

오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사랑하는 딸 다원이와 아들 윤성이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세월호에서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의 삶의 무게, 아픔의 무게가 다시금 나의 마음을 저리게 한다. 동일하게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더 아파하실까도 생각해본다. 그리고 조용히 그들을 위해 다시금 기도해 본다.

장수현 목사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기독교의 역사 15

여성 독립운동가의 산실

김마리아 삼촌 김필순은 세브란스 의전 1회 졸업생으로 안창호와 의형제 간이었다. 노백린, 이갑, 이동열, 이동휘와 같은 독립운동가와 친분이 짙었다. 김마리아는 이러한 애국 지사를 접하며 자랐다.

정신여학교는 일제의 교육령을 거부했으며, 항일 정신이 투철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주역이 되어 일제하 대한민국 최대 비밀 항일단체인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결성하였다. 김마리아(제4회), 이혜경(제1회), 김영순(제8회), 신의경(제10회), 이정숙(제11회), 유인경(제5회) 등이다. 애국부인회 간부들이

전원 검거된 이후에도, 후배들은 이후 중국에서, 미국에서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해방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또는 독립운동가 부인으로서 남편을 내조하기도 했다.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도산 안창호 부인 이해련(연동여학교), 상해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휘의 딸 이의순(제5회), 상해임시정부 외무총장 부수석 김규식 부인 김순애(제3회)가 그렇다. 정신여학교는 가히 우리나라 여성독립운동의 산실이라 할 수 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광복회가 공

이 달의 독립 운동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 달의 독립 운동가는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선정하여 발표하는 한국의 독립운동가 명단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992년부터 매년 월두명 이상의 독립 운동가를 각 월별로 지정하여 발표하고, 이들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 추모 행사와 전시회 등의 기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7년	노응규	양기하	박준승	송병조	김	김순애	정란	박순환	이남규	김악연	정태진	남정각
1998년	신언준	민공호	백용성	홍정학	김인연	이연	김마리아	최제	장도빈	홍범도	신동석	이문재
2013년	이민화	한상열	양전택	김	차경신	김	김	김	왕학수	이성구	노병대	원심창
2014년	김도현	구연영	전덕기	전	방순희	최	최	최	배	나	한	이

동으로 1992년부터 독립 운동가를 각 월별로 선정하여 발표하는 한국의 독립운동가 명단이다. 지금까지 1997년 6월 김순애, 1998년 7월 김마리아(제4회 졸업), 2013년 5월 차경신

(제7회 졸업), 2014년 5월 방순희(제15회 졸업)가 선정되었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사역소식

10주년을 맞은 영어 예배

봄은 새 생명의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꽃망울이 터지고, 나무들은 새싹들로 파릇파릇 합니다. 새들은 둥지로 돌아옵니다. 물론 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최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시 느끼고 회복하였습니다.

참으로 봄은 자연이 단지 겉옷만을 갈아입는 계절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고 또 다시 태어나는 계절입니다. 봄은 새 생명의 계절입니다. 생명의 계절인 이 봄에 “주님의교회 영어사역부”는 새로운 생명을 싹 틔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종려주일에 성인 1명 유아1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영어사역부 창립 10주년 (2005년 3월 27일)을 기념하여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0년 전에 뿌

려졌던 씨앗들은 이제 뿌리를 내려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영어사역부는 제 3 집회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모든 성도들을 수용하지 못하여 소예배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영어사역부는 주일 성인영어예배, 주일 어린이영어예배 및 수요일 어린이성경모임, 외국인들을 위한 토요일 한글학교,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영어 캠프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영어사역부는 외적인 성장 외에도 봉사와 영성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한글학교를 통한 외국인들을 위한 봉사를 포함하여 영어사역부는 하늘꿈학교 (북한 탈북자들을 위한 학교)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섬겨왔습니다. 영어사역부 스태프들은 매달 두 번씩 학생들의 영어 회화를 가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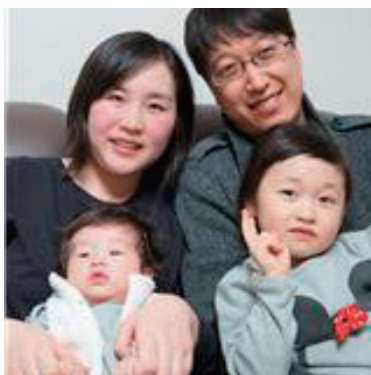


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영어사역부는 영성훈련을 위해 최근 7주간 장로교 신학 기초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지 않고 교회 인근 커피숍에서 아늑한 분위기 속에 커피와 차를 마시며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임을 티올로지(Tea-ology)라고 불렀습니다. 연 1회 가지는 영어사역부 수련회가 이번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가평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체

들의 기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관상기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영어사역부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10년 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 씨앗들을 자라게 하신 생명의 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그 씨앗들은 분명히 거저씨였을 것입니다.

존 슈나이더 목사

아기나들이 : 2015년 3월 29일 3부 예배



김태준 아기

1.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태준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태연이와 태준이가 서로 아껴주고 위해 주는 오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빠 김의현, 엄마 백기경, 2014년 12월 16일생



이루미 아기

1.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2. 하나님의 자녀로써 건강하고 바르고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3. 하나님께서 루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과 루미가 원하는 모든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빠 이상훈, 엄마 윤아름, 2014년 12월 6일생



이제우 아기

1.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자랄 수 있길 기도합니다.
2. 건강하고 지혜로우며 총명한 아이로 항상 행복한 아이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3. 이 시대의 아름다운 리더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빠 이동호, 엄마 강유리, 2015년 1월 5일생

교회단신

반가운학교 미술교실 전시회



반가운학교 미술교실 전시회가 지난 3월 29일~4월 11일까지 지하1층 소식당에서 열렸다. 어린이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그림 약 50점이 전시되어 식당을 한하게 밝혔다.

함글함글

안수집사회 봄맞이 대청소



안수집사회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4월 4일 교회 대청소를 실시했다. 40일 새벽기도회를 마친 안수집사와 장로, 교역자들은 교회주변, 운동장, 예배당 의자 등으로 구역을 나누어 환경을 정비했다.

함글함글

알립니다

- ▶ 임마누엘 (4부) 찬양대 모집
접수 : 이성규 집사 (010-5503-5512)
- ▶ 2015 어린이 무지개잔치 봉사자 모집
일시 : 5월 5일 행사 당일과 전날 준비
분야 : 천막 등 시설 세팅, 체험관과 놀이마당, 먹거리마당 스태프
문의 : 전보영 목사 (010-8588-7309)
- ▶ 2부, 3부예배 영어 동시통역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최영재 집사 (010-3155-7761)
- ▶ 도서기증 캠페인
참고서, 신앙도서, 아동도서, 기타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기간 : 4월 5일부터 28일까지
문의 : 신영백 안수집사(010-2864-8320)